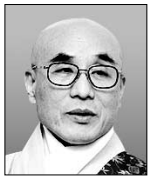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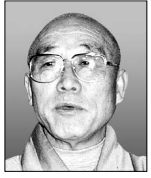
일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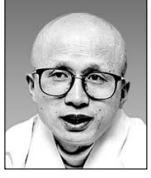
**'분쟁없는... 포럼'에서 축사**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7월 21일 서울 중구 세실세미나실에서 열린 '종교인이 본 분쟁 없는 사회 모색 학술 포럼'에 참석, 축사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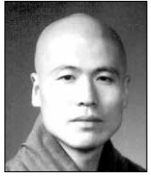
**예비 교회사승 교육**  
진각종 교육원장 경정 정사는 7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 종로원에서 교회사승 양성을 위한 제5기 예비교회사승교육을 실시한다.



**동방불교대 합동특도 교육생 격려**  
동방불교대학장 법장 스님(태고종 중앙 사정원장)은 7월 19일 태고종립 선암사를 방문하고 행사교육중인 동방불교대학 합동특도 교육생을 격려했다.



**청소년 차문화 교실 개설**  
자비신행회 이사장 현장 스님은 7월 27~30일 광주 자비신행회 교육관에서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차문화 교실'을 개설한다.(062)234-2732



**신인 조계종 포교국장예**  
조계종 교육원 전 연수국장 재현 스님은 7월 19일자로 신인 포교국장에 임명됐다. 스님은 경산 인흥사 주지, 의성 육련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김진태 검사 초청강연회**  
우리는선우 생태용 이사장은 7월 23일 서울 우리합계회관에서 <물속을 걸어가는 달>의 저자 인천지검 김진태 검사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자비복지재단 건립 기금 전달**  
(재)보덕학회 윤용숙 회장은 7월 4일 '자비복지재단' 건립 기금으로 승가원 이사장 종범 스님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

**김유혁 총장 '숨은 명장 20인' 선정**

천태종 금강대 김유혁 총장(사진)은 7월 26일 '숨은 명장 20인' 종교 육분야를 대표하는 '숨은 명장'에 선정됐다. '숨은 명장'은 노동부에서 부여하는 타이틀로서, 매년 교육과학 경영 의료 등 9개 분야 주요인사에서 업적과 인품, 활동이 뛰어난 사람을 선정해 널리 알리는 제도. 김 총장은 2004년 3월 금강대 총장 부임 이후 개교 2년차의 신생대학이면서도 세계의 유수대학인 중국 베이징 대학(세계 대학순위 17위), 요녕 대학, 상해사범 대학 등과 국제교류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미니홈피'를 통해 사제의 벽을 허무는 등 훌륭한 스승의 모습을 보여준 점이 높이 평가됐다. 김유혁 기자 shanmok@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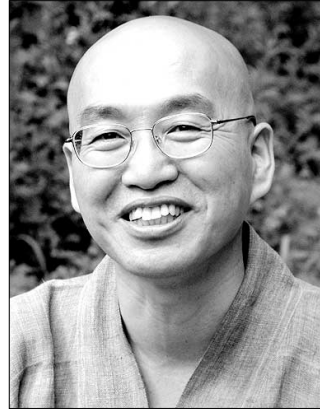


**“통일·평화 화두는 대화로 풀어야죠”**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 남북 갈등해소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평화재단은 통일과 그 이후의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제 3세계 난민 구호는 물론 '빈 그릇 운동' 등의 대중적인 환경운동을 펼쳐온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사진)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7월 19일 서울 정토회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법륜 스님은 “지난해 11월 평화재단을 설립했지만 지출 스님의 단식과 문경 수련원 환경 훼손 문제로 활동을 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평화 정착 방안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활동 방향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6월말 미국에서 디

트라니 북핵 담당 대사를 비롯한 미국 정부와 의회의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던 법륜 스님은 “1년여 만에 개최되는 6자회담은 북핵문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화가 잘 되면 '호재'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륜 스님은 또 “남북이 머리를 맞출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북한의 적극적인 변화에서 기인한다”며 “북한 내부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법륜 스님은 불교계의 대북교류에 대한 조언도 빠뜨리지 않았다. 스님은 “남북민간교류에서 불교



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륜 스님은 하반기에도 강연을 통해 대중들과 함께 통일과 평화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다양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유철주 기자

**동국대, 국립극장과 공동협약 조인식**



동국대(총장 홍기삼)와 국립극장(극장장 김명권)은 7월 19일 서울 국립극장 회의실에서 '아시아 문화동반자 사업' 공동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협약은 교육현장과 공연 예술현장의 상호협력 발전을 목표로 체결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홍기삼 동국대 총장, 김명권 국립극장 극장장 등이 참석했다.

**(사)보리, 전통문화 발전 주제 세미나**



사단법인 보리(이사장 김재일)는 7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재일 이사장, 민족문화연구소 주강현 소장, 문화방송 운영관 편성실장, 한국방송 백영 PD,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황평우 위원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전 개원식**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법장)는 종로구 경치동 선일빌딩에 새로 사무실을 마련함에 따라 7월 19일 이전 개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진해 해군 군법당 영월 스님, 생명나눔 이해속 사무총장, 생명나눔 후원회 이만석 회장 등이 참석했다. 기념식, 사업보고, 하반기 사업계획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울산 해광사, 부산 금강사 등 불사회향**



미륵종 울산 해광사(주지 마하) 산신행화 점안법회가 7월 18일 봉행됐다. 이날 미륵종 화엄회 회장 월산 스님을 비롯한 200여 명이 동참했다. 한편 미륵종 부산 금강사(주지 혜경)는 7월 17일 삼존불 개공불사 회향법회를, 밀양 극락정사(주지 혜안)는 7월 16일 부처님 봉안법회를 각각 봉행했다.

**호국상승사 범우회 창립**



육군 7군단 호국 상승사(주지 오성 법사)는 7월 10일 군중병 모인인 호국 상승사 범우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신도회원 40여 명과 국군장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성 법사는 “범우회 창립에 도움을 준 7군단 발전협의회, 수원 미타회, 서월농원 원장님 등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양방 협진의 새 전형 만들터**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이원철 한방병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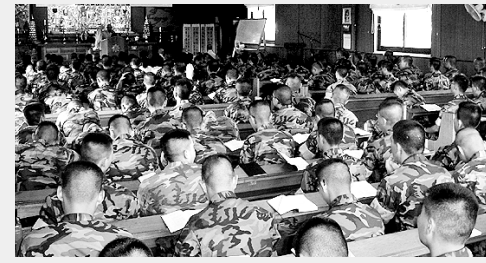
“양·한방 협진 종합병원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7월 18일 개원한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이원철 한방병원장(사진)은 “종립대학인 동국대 부속 불교병원의 한방병원을 이롭게 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가운데 양·한방 진료를 같이하는 곳이 있긴 하지만, 일산불교병원처럼 한 건물 내 완전 통합된 진정한 개념의 양·한방 협진체계는 처음이다. 사실 양·한방 협진은 말처럼 쉽지 않다. 전공별로 세분화된 양방끼리도 진료영역을 놓고 서로 다투는 것이 예사인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에서 양의와 한의가 협진

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의외롭게 통념이었다. 그러나 이 원장은 “일산불교병원과 한방병원은 한 건물 안에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의 뇌에 해당하는 양·한방의 전산시스템까지 모두 통합되어 있다”며 “양방 25개, 한방 8개 진료과가 오직 환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치료방법을 제시하고 봉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산불교병원 양·한방 협진으로 대한민국 의료계의 혁신적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진료분야의 특화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일산지역의 특성에 맞는 부인질환, 소아질환, 정신치료, 노



인러리닉 등 한방의 강점을 살린 의료서비스로 지역주민과 불자들을 감동시키겠다”고 말했다. 100여명이나 되는 한방 의료진들에게, 늘 환자들을 부처님처럼 섬겨 달라고 주문한다는 이 원장은 “병원이 잘되기 위해서는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부족한 것은 지

**해병대 250여 신병 수계법회**



해병 제1000기와 999기 신병 수계법회가 7월 15일 포항 해병대 신병교육단 해동사에서 봉행됐다(사진). 이날 법회의 계사인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해병 신병 250여 명에게 계를 내렸다. 이 행사에는 해병대 해동사 주지 일각 법사, 포항사암연합회장 남승 스님 등 포항사암연합회 소속 사찰 스님과 신도 500여 명이 참석했다. 포항사암연합회는 그동안 매월 해병 교육대, 해항사와 공동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해 오고 있다. 배지선 기자

**성명서**

우리 통도사 대중은 영축총림 정상화에 있어서 방장스님과 집행부의 행보에 대해, 대단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는바 “통도인 화합을 위한 모임”의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사부대중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03년 12월 4일 월하 방장스님 임직 후 백일재도 채 모시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 집행부는 04년 2월 4일 후임 방장스님을 초우스님으로 결정 총림입회서 만장일치로 추대하고(당시 산중총회는 생략이 가능하다 생각했음) 중앙총회에 추대 동의 요청을 구하지 않고, 차일 피일 미루다가 동년 3월 임시총회에서 개정 총림법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초우스님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당시 고불총림 백양사의 경우, 통도사보다 더 늦게 총림입회와 산중총회에서 현 방장 큰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하고도, 구 총림법으로 고불총림을 정상화시킨 경우가 있으며, 당시 통도사 집행부가 같은 시기에 중앙총회에 영축총림 정상화건을 상정하지 않은 것은 현 집행부의 천리일설, 우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신 총림법이 즉시 발효함과 동시에 구 총림법의 임회규정이 일년의 경과 과정을 두고 있었던 바 집행부의 의지가 있었으면 영축총림의 정상화는 또 한 번 구 총림법으로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일년 동안 총림정상화에 덧셈, 뺄셈만 하다가 구 총림법을 사문화시키는 우를 다시 범하고 말았습니다.

신총림법을 도입 산중총회를 개최했으나 05년 2월 28일 1차 산중총회 역시 유회, 05년 4월 20일 2차 산중총회 역시 유회로 끝나면서 총림정상화는 요원해지고, 설상가상으로 주지 임기만료(05년 9월 6일)가 다가오면서 집행부의 의중이 총림대중의 의사를 무시하고, 총림 정상화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 총림법의 발효 이후 초우의 준총림사고 사찰이 진행중이고 총림대중의 의구심이 증폭되고 이는 현실에서, 현 통도사주지스님께서 공식모임에서의 ‘입장표명’이 미루어지고 현 주지임기가 05년 9월 6일로 차기 주지 품신 절차가 다루어져야 함에도, 합법적 방장부재상태의 지속에다 총림입회의 기능이 사실상 와해된 현실에서, 현 주지스님에게 거듭 ‘입장표명’을 요구합니다.

이울러 당시 부방장에 계셨고 방장위를 승계한 현 방장스님께서도 영축총림의 비정상적인 상태의 지속과 주지스님의 계속적인 실정에 대해 법적, 도의적인 책임이 없는지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방장스님 부재와 주지임기 말에 즈음하여 비상대책위원회(집행부 포함, 노천문도 및 경봉문도 동수와 ‘통 화 모’)를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뒤늦게나마 방장스님과 주지스님의 현행판 판단을 바라마지 않으며, 방장스님과 주지스님에게 불은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통 화 모”의 입장을 밝힙니다.

불기 2549. 7. 16(2005년 7월 16일)

**“통도인 화합을 위한 모임”**

수석 공동대표 인산, 상임 위원장 명신, 간사장 동주 외 발기위원 107명